

지역 메아리

김제시 보건소, 감염병 주의 당부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신학기 에 많이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해당 감염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최근 환절기와 신학기를 맞이하여 크게 늘고 있다. 드물게는 성인도 발병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주일 이상 고열을 동반한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두염, 발진 등의 증상이 계속될 경우 감염병을 의심해야 한다.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위한 경영역신 방안 마련과 농민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미래 김제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2일간 김제시 농민회 회원 4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민회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건강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농민회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농촌 공동체 발전의 방향'이라는 강의를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전문가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 아간에는 김제시 농민회원이 한데 모여 김제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토론프로젝트)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장 노인회 정기총회

김제시 성덕면장(신형순)에서는 농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마을 공동생활체의 중심적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일 성덕면 노인회 정기총회 시 노인 회장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현재 마을의 어르신으로 마을의 화합과 조정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노인 회장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토론과 의견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사로운 갈등 조정과 건강 체조, 요가, 게이트볼 등 여가 활동 방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의 적절한 집행과 정산 방법에 대해 협조 사항을 전달하면서 경로당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경로당 방난방 등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호국체협센터 역설

완주군-우석대, 국회사 건립 프로젝트 학술회의 개최

완주군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호국체협센터 건립 프로젝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호국체협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호국체협센터 건립 프로젝트 학술회의는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우석대 국방정책연구소와 군사학과, 완주군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호국체협센터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장영달 우석대 총장, 김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김요환 前육군대장을 비롯해 전국 4년제 대학교 8개 군사학과 재학생 및 군사학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 발표자로 나선 박선우 前 육군대장은 "완주군은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인접한 군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안보교육과 전투체험훈련을 상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한 역사적 전·사적지 견학으로 호국 안보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고 호국체협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법현 조선대학교 군사학과장과 서동하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호국체협센터 조성사업'과 '센터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완주군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호국체협센터 건립 프로젝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호국체협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철취 前 육군대장, 이영석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엄기석 (份)필드테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장영달 총장은 "이 시대의 젊은 주역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치하고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이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일들이 시작돼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호국체협센터 건립을 위한 굳건한 결음을 내디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임진왜란 승전의 단초를 마련한 이근 웅치와 이치 항전지를 비롯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지역이자 최후항전지인 호국충절의 고장이다"며 "특히 관군과 의병이 하나로 뭉쳐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용사전투는 미래세대에게 한민족의 우수성, 특히 나라사랑이 중요하다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며 대한민국 호국체협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제도 시행

김제시, '신속·공정·친절 민원행정' 구현

김제시는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2018년에도 년2회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처리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정한 법정처리 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였을 경우,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된다.

김제시는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진 민

원사무의 경우 처리기간만 준수하면 된다는 단일한 생각을 버리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 행정을 구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연2회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이외에도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 모든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인 등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 근무 시간을 연장하여 매주 월요일 여권, 주민등록, 인감 등을 발급·처리하고 있다.

또한 고객센터에는 미니 북 카페, 민원인 전용 컴퓨터, 복사기, 휴대폰 충전기 등을 설치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빠른 민원처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도약의 시대 시민과 함께”

박준배 김제시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개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일 오후 2시30분 출판기념회와 개소식을 김제시 요촌동 동희빌딩(타미널사거리 체사피크 커피숍 건물)에서 개최했다.



새만금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등 굵직한 도정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김제시의 방향 설정과 일자리창출, 농업비전 등을 담았다.

이날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김춘진 김제, 부안지역위원장과 유종근 전 전라북도지사, 황인환 공동선대위원장 등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선거승리를 기원했다.

이날 박준배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정의로운 김제 도약의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주요 공약 실행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공정한 인사행정 (인사정의7.0실천) 등 시장 정상화와 희망찬 김제건설의 비전과 신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와일드푸축제, 중국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 참여

완주와일드푸축제가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2일 완주군은 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제28회 중국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에 참여해 대승한지마을 한지패션쇼와 연계, 와일드푸드축제 홍보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중국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는 이탈리아,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18개국 30만 명이 참가하는 상해시 등 9개의 성과 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경제무역 행사다.

완주군은 6000개의 부스가 있는 행

시장내에서 홍보 퍼레이드를 진행해 건강한 먹거리와 야생 체험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상해를 방문한 이명기 추진위원장은 "건강한 먹거리와 야생 체험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한 관심을 유감없이 끌어내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릴 예정이다. 옛 방식의 음식과 천렵과 화덕을 이용한 야생체험의 진수를 만나는 자리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17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일 완주군은 2017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군은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2012년부터 5번의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전라북도 세정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세정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완주군의 이 같은 성과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성실납세자 표창, 마을세

무사 제도 시행, ARS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 위주 세무행정을 펼친 결과다.

이외에도 내실있는 세무조사 실시,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별동기동대 운영,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의 쾌거는 군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 덕분이다"며 "올 한해에도 조세 형평성과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